

인터뷰

“건설 엔지니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다질 터”

- 기술자·경영인으로 평생 쌓아온 경험·노하우 쏟아 부어 68만 기술인의 구심점 역할에 진력 -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임 회장

김정중 전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주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대형 주택업체의 CEO를 지냈고, 주택협회의 수장을 역임한 데 따른 후광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건축 기술, 특히 플랜트 건축 기술의 산증인이다.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효시인 고리 원전 건설공사에 건축 기술자로 참여해 사업 초기부터 완공 때까지 일하면서 건설 기술인으로 성장하였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는 PM으로 활약하였고, 이후 해외 공사의 중역으로서 7년 간 주재하기도 하였다. “저는 건설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정열도 넘쳐흐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열을 앞으로 협회 경영에 쏟아 부어 우리 협회가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할 생각입니다.” 최근 68만 건설 기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 취임하여 건설 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은 물론 젊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협회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지난달 18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인 과학 기술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건설 엔지니어들의 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활발히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설 기술인들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각오와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건설 기술인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때 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건설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 더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건설 기술인의 경력 관리, 교육 훈련,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건설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격려와 질책의 목소리가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정책의 주요 과정을 회원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주요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원들과 교감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파되어 신뢰 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 기술인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현안 사항들을 협회 내부 조직과 이사진, 위원회 등의 귀

중한 의견을 들어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술자들이 회원인 협회의 사령탑으로 뽑히신 데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뒤 1969년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공사에 발령을 받아 초기부터 준공시까지 건축 기술자로서 지냈습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하여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사의 건축 PM으로 근무하였고, 해외 공사의 증역으로 7년간 주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택 분야는 그 이후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주택건설업체의 대표를 지내고 관련 협회장을 하다보니까 주택 전문가로 불리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건설 기술자, 특히 플랜트 건축 기술자로 살아온 기술인입니다. 물론 기업 대표를 하였으니 건설 경영인이기도 하지요.

사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관심은 많았지만 회사 경영 등으로 바빠 개개인이 회원인 협회 활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협회 원로 몇 분으로부터 건설 환경이 달라지는 있는 시점에서 협회 활동에 참여해 건설 기술인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협회의 변화를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인터뷰

다. 처음에는 전임 회장들이 희생적으로 일귀 온 협회를 잘 경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직 건강하고 정열도 누구 못지않은 만큼 제가 그동안 기술자와 경영인으로 평생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협회 운영에 쏟아 붓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건설 기술인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하였지만 아직 그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설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을 성장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력이 건설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인의 위상도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정부 포상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 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함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 2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이미지 변화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교육 기관 방문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기술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건설 기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결국 건설 기술인의 위상은 경쟁력 향상과 이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건설산업이 지식정보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 개발과 전문적인 관리 기법을 부단히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인재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며,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건설 분야의 최대 고민거리는 인력은 넘치지만 필요한 분야의 쓸 만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여 간 해외 공사는 주로 기계, 화학, 전기 등 플랜트 공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인력 수급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 기술인의 인력 수급 예측 시스템과 분야별 기술자간 호환을 촉진할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건설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인 과학 기

술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건설 엔지니어들의 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활발히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건설 기술인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꼼꼼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 기술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던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과 함께 해외 실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더욱 심화·확대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건설시장 환경에 맞춰 국제적인 기술인으로서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영 등 다양한 지식으로 액티브한 생각과 행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건설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지요?


향후 협회의 고유 업무인 건설 기술자 경력 관리와 민원인의 회원 서비스 강화는 물론, 회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세심히 검토해 반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건설 기술자 경력 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명실상부하게 건설 기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건의를 통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한 인력 양성 방안 마련

과 해외건설 인력 및 특수 기술인 양성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젊고 패기 있는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건설 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설기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회관 내 잉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기술인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참신한 방안 등을 마련해 건설 기술인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협회의 역할을 설립 목적에 맞도록 분명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결정할 때 그 내용들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규정 및 정관 등을 제대로 정립하며, 여러 가지 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공평하도록 만들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8만 건설 기술인의 구심체로서 건설 기술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대변하는 협회, 임직원간의 소통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협회, 진정으로 회원을 위하고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글 : 이 형 우 편집장